

제99회 총회 정책문서 채택

자살에 대한 목회지침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봉사부
생 명 신 학 협 의 회

목차

1. 들어가는 말	3
2. 한국사회의 자살의 현황	4
3. 자살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	6
4. 하나님나라 생명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소명	14
5. 자살에 대한 목회적 대응	16
6. 자살위험에 있는 이들을 알아보기	19
7. 자살 발생 후 대처하는 일	22
8. 나가는 말	26
9. 부록	27
1) 자살자의 장례를 위한 예배문(1) 신자의 자살로 그 사실이 알려진 경우	27
2) 자살자의 장례를 위한 예배문(2) 신자의 자살로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32
3) 자살자의 장례를 위한 예배문(3) 불신자 자살의 경우	36
4) 자살자를 위한 유가족 예배	40
5) 자살자의 장례관련 성경구절들	43
6) 자살에 대한 설교지침	50
7) 자살예방을 위해 언급해야 할 것들	51
8) 도움 받을 수 있는 연계기관	52
10. 경과보고	53

1. 들어가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아버지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생명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능력에 따라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어떠한 상황과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고 존엄하며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구조, 질병, 권력, 환경, 인간관계, 사상 등의 어떠한 부분에 따라서 위협과 해를 받기도 한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학의 극치 현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고 죽이는 행위인 자살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의 사람들 즉, 부모 형제와 같은 가족, 친지, 동료, 이웃들이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희망을 포기하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무시하게 된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며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자살을 한다는 사실이다. 자살한 그리스도인의 구원문제와 유기족들의 문제, 장례예식 등 실제적인 목회적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오심을 믿고 모든 인간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섬기며 나누는 디아코니아 사명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며 책임인 것을 믿는다.

본 교단 총회는 지난 2002-2012년 10년 동안 생명살리기운동을 펼쳐왔고 이어서 2012-2022년을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 10년으로 선포하고 장기적 비전으로 삼고 있다. 지난 98회 총회에서는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인 자살문제에 대한 목회지침서의 제작 및 배포를 헌의하여 총회사회봉사부의 사회문제위원회에서 생명신학협의회와 협력하여 자살방지를 위한 목회지침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문서가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목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귀한 목회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 어떠한 생명도 그들의 생명의 소중함이 지켜 보호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보람된 삶을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2. 한국사회 자살의 현황

요즘 대한민국을 일컬어 자살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단연1위이다. 2위 국가인 일본이나 헝가리에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1위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현재 28.1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 죽는 사람의 숫자이다. 그런데 2위인 일본의 경우는 24.4명, 그리고 3위인 헝가리의 경우는 21.5 명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은 2012년 기준 한 해 14,160명이다. 전년도 2011년 15,609명에 비하면 많이 줄어 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루 39명이 자살로 죽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9월이면 통계청에서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죽은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2년 통계를 보면 자살은 전체 사망원인 중에 4위이다. 1위가 암이고, 2위가 뇌혈관질환, 3위가 심장질환이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애기다. 그 다음으로 당뇨병과 폐렴 등이 나온다. 심지어 교통사고는 9위다.

자살은 사회적 질병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 가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이 사회가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생명이 스스로 죽어 가는데 그들을 이 사회가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다른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특히 정부가 나서서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계몽·예방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을 통해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냉담하다. 도우려는 마음도 없고, 심지어 외면하려고 한다.

자살에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다. 자살에 있어서 어떤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살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10대, 20대, 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이다. 이 나이 대 사람들이 죽는데 있어서 자살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대에서는 자살이 2위였다. 그런데 약 3년 전부터 30대에서도 자살은 사망원인 1위가 되었다. 40대와 5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 2위이다. 이 나이 대부터는 암으로 죽는 이들이 가장 많다. 이제 60대부터는 그래도 자살에 의한 사망은 그 순위에서 좀 밀려난다. 그래도 60대에서는 4위, 70대에서는 6위, 80대 이상에는 9위이다.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는 노년층의 자살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어

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에 병이 더해지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도 싫고, 사는 것이 버거워서 자살하는 이들이 많다. 물론 이 가운데는 자녀들이 잘 돌보지 못해서 외로움에 의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한창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야할 30, 40, 50대의 자살이다. 이들은 주로 취학연령, 대학생, 결혼정년기의 자녀들을 둔 부모세대이다. 그런데 이들이 자살로 가장 많이 죽는다. 이것은 이 사회의 커다란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은 이 부모의 자살로 인해서 큰 짐을 안고 산다. 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살로 인해서 이들 역시 자살의 큰 위험 가운데 사는 것이다. 자살을 유전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살의 위험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자살경향 중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남자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자살률은 여자보다 2배가 넘는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12년을 봐도 전체의 자살률은 28.1명이었고, 이 중 여자는 18.0명이었던데 반해 남자는 38.2명으로 여자에 비해 2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살자의 수가 많은 40대부터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40부터는 평균인 2배를 훌쩍 넘어서고, 50대와 60대에서는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70대와 80대 이상에서는 비율로는 3배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자살률 자체가 높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 즉 자살률에 있어서 70대는 73명 정도의 차이가, 80대 이상에서는 약 120명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28.1명인데 비해 이 비교수치는 정말 너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을 분석해 보면 결국 가치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생명의 가치관이 아니라 경제와 효율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토대가 무너지면 살아야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대학중심의 경쟁에 몰리고, 장년층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매여 있지만 때로 실패하고, 노인들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잃어버려서 살겠다는 소망을 잃고 있다. 이러한 생명경시의 세상, 아니 정확히 본다면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교회가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자살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

3.1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1) 성삼위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로서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은 철저히 그 원천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명제이다(창2:7; 시36:9). 성삼위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고 생명의 원천이라는 선언은 깊은 생명 존중의 사상의 선포요 표현이다. 이 선언은 불가침의 진리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언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 이 선언에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생명든지 자신의 생명든지 파괴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신32:39; 삼상2:6; 욥1:21; 계1:18 참조). 생명 파괴를 금지하는 명령이 구약성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십계명에 여섯째 계명으로 명시되어 있다. “살인하지 말라”(출20:13; 신5:17; 롬13:9; 약2:11 참조). 율법의 살인 금지 계명은 생명 사랑과 보호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6계명의 생명 존엄의 정신을 더 철저히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마5:21, 19:18 참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 그러면 자신을 죽이는 행위도 제6계명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제6계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도 금지하고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한다(『하나님의 도성』 1권 20절). 하지만 아퀴나스나 칼뱅은 십계명의 살인금지 계명을 결코 자살과 관련시키지 않는다(Watt “칼뱅의 자살론” 참조).

2) 성경에 증언된 생명의 복음에 비추어 자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최악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창9:6; 약3:9 참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생명에 대한 사랑, 곧 십계명과 예수님의 이웃 사랑과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랑(마22:39 참조)의 말씀을 고려할 때 사람에게는 자

살할 권위가 없다(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도성』 1권 20절 참조).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은 하나님, 자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죄이다(아퀴나스, 『신학대전』 2부의 2부 64문제 5절 참조). 자살은 생명의 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죽음에 대한 준비를 명하시지만 그 때를 결정할 권리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칼뱅, 삼상31:1-13 사울과 무기병에 관한 설교 참조). 자살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한 결정이요, 불신의 행위요,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칼 바르트, 『교회교의학』 3/4 “생명을 위한 자유” 참조). 누구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살을 감행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분명하게 죄이다”(본회퍼, 『윤리학』 “자살” 참조). 자살, 곧 자기 '살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지만 모든 죽음과 동일하게 자신을 죽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을 적대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몰트만, 『희망의 윤리』 “사멸과 죽음 속에서의 생명력” 참조).

3) 생명은 사람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가? 그래서 자살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요 원천이라는 성경의 근본 명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로마 사회의 견유학과나 스토이주의자들과 같이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명예롭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강한 정신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하고 또 때로는 존경하기까지 하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읍과 같이 죽고 싶을 정도의 곤경과 억압의 상황에 처해서도 결코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도성』 1권 22-24절 참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생명을 보존하기를 자연적으로 열망하는 자연법에도 어긋나고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이생의 현실적인 고통 - 그것이 아무리 크고 심하다 하더라도 - 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감행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삶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보다 작은 악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아퀴나스, 『신학대전』 2부의 2부 64문제 5절 참조). 자살은 인간의 존귀한 자유의 표현으로 고귀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철학자들의 입장은 그릇된 것이다. 로마의 스토아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명예로운 자살에 대한 예찬도 그릇되다(칼뱅, 『칼뱅전집』 CO 46: 718 참조). 은총을 전제하지 않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용인될 수 없다. 인간이 부여받은 자유의 참된 의미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자유, 곧 사귄과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자유이다. 바로 이러한 이타적 사랑을 위한 자유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발견된다(바르트, “하나님의 인간성” 참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유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자유를 포함하지만 그 자유조차 보다 고차적인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 자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남용된다. 오직 이타적인 희생으로서의 자유만이 인정될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궁극적이고 극단적인 자기 정당화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본회퍼, 『윤리학』 “자살” 참조). 자유 또는 자기 결정의 최고조의 행위로 정당화하는 자기 죽임은 이기적인 동기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다. 이러한 자기 죽임은 사회적 관계에 엄청난 파장의 슬픔을 야기한다. 우리가 자기 죽임을 실제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자유로운 자기 결정의 행위로서의 자기 죽임은 용납될 수 없다(몰트만, 『희망의 윤리』 “사멸과 죽음 속에서의 생명력” 참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기본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생명을 오직 자기 권리나 책임에 귀속시키는 자기결정권의 주장은 생명의 복음과 부합하지 않는다.

3.2 생명 상실을 하나님의 공훈의 정의로부터 이해한다.

1) 생명 상실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최고의 덕목은 바로 공훈의 정의이다.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의 복음의 심장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공훈의 정의가 자리하고 있다(출32:7-14; 사49:15; 53:4-6; 54:7-10; 55:7; 요3:16; 요일4:7-21 참조). 생명의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공훈의 정의,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심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왜곡된 생명을 회복시키셨으며 성령께서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생명을 돌보심을 증언한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 생명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대망하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사9:2), 즉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눅1:79)의 암울한 죄의 현실을 증언한다. 비록 성경에 명시적으로 증언되어 있지는 않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회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공훈의 정의를 체험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거나 또는 실제로 끊은 사람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조차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왕상19:4 참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신실한 신앙인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자기의 생

일을 저주”했다는 성경의 증언을 듣지 않는가?(욥3장 참조). 복음서에도 스스로 죽음을 시도한 경우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마17:14-20; 막9:14-29; 눅9:37-43 참조). 예수께서 무수히 많은 약한 자들, 즉 병든 자들, 주린 자들, 귀신들린 자들에게 베푸신 긍휼의 정의를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복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찌되었을 것인가? 생명의 복음은 모든 생명 상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정의로부터 이해한다.

2)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지만 정죄보다는 생명에 대한 긍휼의 정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는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몸소 실천하신 생명복음의 근본정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생명 파괴와 상실의 사변적인 원인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정의에서 비롯되는 치유의 은총을 먼저 베푸셨다(막1:23-26; 눅4:31-37; 막5:1-5; 마8:28-34; 눅8:26-39 참조). 생명의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의 정의를 탕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눅10:25-37)로,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빛을 진 자를 불쌍히 여겨 그 빛을 탕감해주는 주인(마18:21-35)으로, 그리고 강도만나 죽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눅15:11-32)으로 비유한다.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연약함의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히2:18).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과 부조리, 곤경과 비극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이켜 새 생명을 살 것을 권면하시지 결코 스스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로 내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요8:1-11). 예수님의 긍휼 사역에 비추어 볼 때 생명상실에 대한 윤리적인 규범적 진지함이나 상황의 절박함과 암울한 시대정신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정의를 드러내고 전해야 할 책무는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의 살인 금지 계명을 더욱 철저히 생명 사랑과 존엄의 복음으로 승화시키셨다(마5:21). 예수님은 곧 생명이다(요11:25).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요10:10).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마16:26).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주시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의 정의가 계시된 위대한 생명살림의 사건인 것이다. 성경은 자살을 금지하면서도 절망에 처한 이들을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로 부른다(본회퍼, 『윤리학』 “자살” 참조).

3) 생명의 복음은 이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의 눈으로 무수한 생명 상실을 야기하는 암울한 시대정신의 배후에 도사린 사탄의 역사를 깊이 통찰한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나라 생명복음에 대적하는 사탄의 일이다(요8:44). 예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로 내모는 불의한 현실에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꿰뚫어보셨다(참조. 막1:23-26). 사도 바울도 죽음의 정신의 기저에 도사린 사탄의 인도를 받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고전15:24)의 역사를 깊이 통찰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예민한 양심이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당하는 괴로움의 표시로서 사탄의 원인 제공과 개인이 느끼는 고통 사이에서 일어난다(루터, “1512년 탁상강화” 참조). 자살은 자기 보존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격동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본성에 부여해주신 지식이 지워졌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자살이 일어날 수 있다(Watt “칼뱅의 자살론” 참조). 하지만 자살이 마귀에 사로잡혀 일어난다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살을 야기하는 암울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등한시한 채 자살자들을 단순히 정신질환이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정죄하는 입장은 성경이 증언하고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실천하신 생명복음의 공훈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3 자살에 대한 판단과 정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다.

1)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의 복음과 신학의 생명존중 사상들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를 정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도저히 설명하고 이해할 길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비에 맡긴다.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도 스스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 구약에 다섯 차례, 신약에 한 차례 모두 여섯 차례 나타난다. 삼손의 죽음(삿16:23-31), 사울의 죽음(삼상31:1-13), 사울의 무기병의 죽음(삼상31:5), 압살롬의 군대장관 아히도벨의 죽음(삼하17:23), 시므리의 죽음(왕상16:15-18), 그리고 가롯 유다의 죽음(마27:3-10; 참조. 행1:18)이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 스스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을 긍정하거나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지혜와 판단에 가려진 채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지는 영역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언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1).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위의 동기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도성』 1권 28절).

2) 자살자들에 대한 애도와 장례를 금지해야 하는가?

교회는 자살자들에 대한 애도와 장례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다. 563년의 브라가 공의회는 자살자들을 위해 장례에서 성만찬을 시행하고 시편을 찬양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이후 수세기 동안 중세 가톨릭교회는 참회 없이 자살을 범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한 묘지에 묻히는 것을 금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은 생명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귀속된다는 입장에서 자살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자살자의 시신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칼뱅도 자살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자살자들의 매장 예식을 금지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Watt “칼뱅의 자살론” 참조). 한 때 교회가 취한 자살자들의 시신과 유족들에 대한 엄격하고 가혹한 입장은 성삼위 하나님의 공훈의 정의를 무시한 채 생명의 복음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한 측면이 없지 않다. 자살을 용인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훈의 정의에 기대어 생명 상실을 함께 애도하고 비탄에 빠진 이웃들을 회개와 용서를 통해 화해와 치유로 인도하는 공동체 회복의 예식은 생명복음의 근본정신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아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인지를 알고 있다(요11:32-33; 20:11 참조).

4. 하나님나라 생명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소명

4.1 한국교회는 생명살림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시대적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갱신해야 한다.

1) 한국교회는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21세기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생명 상실과 파괴의 아픔에 참여하면서 하나님나라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도적인 정체성과 소명 및 책임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렘31:33; 겔37:27; 참조, 고후6:16; 히8:10)이요, 그리스도의 몸(고전12:12-31; 엡1:23; 참조, 5:26-27)이요, 성령의 전(고전3:16, 6:19; 참조, 엡2:21-22; 벧전2:9-10)이다. 생명은 그 원천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한국교회는 생명 상실과 파괴의 급증이 중차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현실에서 생명의 창조주요 수여자요 보호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살림과 생명공동체 회복을 향한 부르심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 가장 긴급하게 위임된 생명살림과 자살예방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 복음은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온 피조세계(롬8:22)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나라 생명복음을 타협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 복음은 세상 속에서 생명의 인격, 생명의 가치, 생명의 문화, 생명의 경제, 그리고 생명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2)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겹비를 본받아 하나님의 공훈의 정의로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회를 치유하고 화해시켜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생명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위기를 깊이 공감하며, 생명의 고통에 참여하는 보다 성숙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자신의 자유라고 정당화하면서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그러한 태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존중과 생명살림의 뜻에 반할 뿐만 아니라 더욱 큰 고통과 절망으로 이르게 할 뿐이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하는 개인의 신

양과 책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선의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에 대한 형식적인 규범적 판단과 정죄를 넘어 생명의 복음에 비추어 생명 상실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나라의 치유와 화해 사역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한국교회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를 통합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생명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지역교회들이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로서 지역사회 공동체들과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 연대와 생명망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생명 상실을 야기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영적인 현실에 주목하고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할 생명살림을 위한 치유와 화해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신학적으로는 죄의 문제이지만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병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4.2 한국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의 정의에 비추어 회개하는 심정으로 생명상실의 현실을 온전히 성찰해야 할 것이다.

1)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정의로 오늘날 지구촌과 한국사회의 어두운 심연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자세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생명의 복음에 대한 깊은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는 구조적인 죄악의 발로요 생명공동체 파괴의 가장 불행한 표현이다. 하나님나라 생명 복음에 비추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실상을 통합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요청된다. 희망의 복음을 거슬러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절망의 시대정신을 깊이 통찰해야 할 것이다.

2) 한국교회는 생명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절망의 정신이 여러 복합적인 개인과 사회의 위기의 결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사회 공동체의 기초를 떠받치는 가치관과 규범의 해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도덕적 규범과 공동체의 해체와 생명존엄의 가치관의 상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와 폭력적인 죽음이 급속히 증가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생명존중의 가치관의 상실과 도덕적 규범과 공동체의 해체는 우리 사회의 바탕에 깊이 주름 잡혀 있는 개인적·집단적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의 배금주의와 천박한 성장주의 및 경쟁주의에서 비롯됨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개인은 점점 파편화되어 가고, 가정과 지역사회는 점차 공동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가정불화나 이혼, 가정에서의 학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 가정 폭력,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실업, 정신 이상, 장애 등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개인적·집단적 병리는 실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생명파괴의 현실을 개인의 도덕적 책임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생명경시와 자살을 촉발하는 정의와 평화가 결핍된 사회경제적 환경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노미적 상황, 즉 불공평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다수 구성원들의 좌절과 절망과 분노, 상대적 빈곤과 소외에서 오는 고통과 우울증, 사회의 비인간화와 공동체의 붕괴 등의 사회병리들이 비인간적인 무한경쟁의 사회경제 환경에서 야기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4.3 한국교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기와 행위를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자살을 예방하고 유가족들을 돌보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살림의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1) 한국교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불신앙의 행위로 직시하면서도 영원히 저주 받을 범죄로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의 주권에 속해 있다. 따라서 여러 복합적인 계기에서 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인해 지옥에 간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의 증언과 신학자들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용서받을 길 없는 가장 치명적인 대죄로 간주할 근거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긍휼의 정의를 숙고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든 행위를 가장 치명적인 대죄로 혹독하게 정죄하는 율법주의는 생명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실제로 자살은 설명하고 해명하기 어려운 동기들에 의해 일어날 경우도 있다.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의 지혜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유와 공휼에 맡기는 것이 최선임을 보여준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문제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에 기대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면서 공동체의 일치를 깨트리는 분쟁과 분란을 조성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한국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회개하는 심정으로 생명의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휼의 정의를 더욱 힘써 전하고 실천해야 한다.

불안과 절망의 시대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 가운데는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숙고해야 한다(눅4:18-19 참조). 생명의 복음은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한다(롬8:38-39 참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은 마땅히 받아들여지고 긍정되고 사랑받아야 한다. 어떤 생명이 받아들여지고 긍정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스러졌다면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휼의 정의의 심정으로 생명 상실을 함께 아파하고 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교회는 초기 교회 공동체와 같이 생명상실의 아픔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생명 상실을 예방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생명살림의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요11:17-44 참조).

오늘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상실의 아픔으로 실로 공황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 매년 15,000의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화해와 치유를 기다리는 무수한 생명의 아픈 외침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우리 곁에 사랑하는 가족의 가슴 아픈 상실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져 어둠의 심연을 헤매는 많은 이웃들이 존재한다. 한국교회는 생명복음의 근본정신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아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인지를 깊이 헤아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휼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상실된 생명을 함께 애도하고 비탄에 빠진 이웃들을 회개와 용서를 통해 치유와 화해로 인도하는 생명공동체 회복의 예식도 마련할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성격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칼뱅, 『기독교강요』 4.1.4 참조).

5. 자살에 대한 목회적 대응

자살의 원인은 심리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 우울증을 포함하여 정신분열증, 불안장애 등이 원인 되고 있다.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은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섭식장애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래도 목회현장에서 발견하고 대처하기가 나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위험이 숨겨져 있다. 결국 자살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치유와 상담이라는 전문적인 부분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명의 관점에서 함께 나누는 문화도 중요하다. 특히 기도와 영적 돌봄, 그리고 보살핌과 함께함의 공동체성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5.1 생명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설교 및 교육: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려는 욕구와 함께 살고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를 수 없이 갖고 있겠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라도 찾게 된다면 그것을 의지하여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나 교육에서 생명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꼭 '자살'에 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생명, 삶,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밝혀 주는 것은 중요하다.

1) 게이트 키퍼 교육

교인들이 모두 자살예방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러 자살예방단체에서는 일반인들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보통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상담하고, 전문가에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구체적으로 라이프호프의 '자살 예방기초교육 무지개',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보고듣고말하기',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자살 예방전문가교육(ASIST)' 같은 것이 있다. 단체에 문의하면 강사를 파견해 주고 수수료증을 준다.

2) 교회 내 돌봄 서비스 강화

자살은 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신의 문제와 더불어 경제, 복지, 관계의 문제 등 각 개인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있다. 자살예방은 바로 이런 다양한 원인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가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심방을 통한 가정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즉시구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의 장기 돌봄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회내의 상담전문가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3) 자살유가족에 대한 돌봄

자살유가족은 자살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슬픔, 죄책감, 분노, 포기 등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공동체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살에 대해 교회는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로 인해 이들은 교회를 등지고, 신앙마저 놓는 경우들이 많다. 이에 교회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해 주는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장례의 과정에서 논쟁보다는 이들과 함께 해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교인의 추모예배를 놓치지 않고 교역자들이나 교인들이 챙겨주는 것은 또 다른 자살위험을 피하는 길이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전화나 몇 지역에서 행해지는 자살예방센터의 유가족 모임에 이들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5.2 지역사회 연계

1) 자매결연된 상담소 수시 안내

현재 우리사회에는 목회상담이나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지역에는 이들이 운영하는 상담소도 많이 있다. 교회에서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상담소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입장에서도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연결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는 상담소를 선정하여 정기후원을 하고, 주보 등을 통해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상담소로 소개하면 필요한 교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각 지역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있다. 이외에도

보건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생명존중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연결하면 좋은 가능성을 열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곳에서는 다양한 자원봉사의 영역이 있다. 생명 살리기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그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사역의 새로운 부분이 될 수 있다.

3) 지역 생명망 강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일이다. 그것은 자살예방담당자뿐만 아니라 보건소, 과출소, 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모든 이들이 나서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체부, 신문 및 요구르트 배달원, 검침원, 이웃, 복지사 등도 중요한 자살예방요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들을 전문가들과 연계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을 둔 교회가 이들과 연계하고 생명망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주변에서 자살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6. 자살위험에 있는 이들을 알아보기

6.1 자살하려는 사람의 심리

흔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살행동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은 단지 특정 상태에 처했을 때 보통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거나 판단하기 때문에 자살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상적이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을 압도하는 두려움, 수치심, 불안, 버림받았다는 생각, 죄책감, 불행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자살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Shneidman, 200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자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정신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현재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살행동을 하려고 한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살로 죽는 것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자살로 죽는 것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한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개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면 대화를 시작할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만 한다.

6.2 자살하려는 사람의 식별 ·분류 ·개입

자살행동을 하려는 사람은 자살상태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시작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고신호를 보인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자살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는 훨씬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살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60~90%가 자살의 경고신호를 나타내고, 자살로 사망한 사람 중에서 자살로 사망하기 전 한 달간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아가는 비율이 약 70%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므로 자살행동을 하려는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의 경고신호를 정확하게 알고 식별할 수 있다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자살로 잃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살의 경고신호

- 죽고 싶다는 언어적 표현
- 죽음 이후에 발생할 일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표현
- 자살사이트 등에 접속
- 사망 또는 자살한 사람에 대한 언급
-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함
- 우울, 불안, 절망감을 호소함
-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표현함
- 삶의 무의미함이나 무가치성을 언급
- 잠 들기 어려워하거나 자주 깨어 뒤척임
- 식욕 저하 또는 폭식
- 매사에 의욕이 저하되어 있음
- 평소보다 음주나 흡연량이 증가함
-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름
- 뚜렷한 이유 없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임
- 문자나 SNS 등에서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표현

또한 자살행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촉발사건에는 배우자와의 갈등, 친구와의 문제, 가족갈등 법적인 처벌 등이 포함되며 자살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신질환, 자살 시도력, 자살의 가족력 등을 위험요인의 예로 들 수 있다.

자살의 위험요인

- 가족이나 가까운 인·친적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음
- 자살시도의 과거력이 있음
- 정신장애, 예를 들면 주요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음
- 최근에 상실 경험을 한 일이 있음.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
- 이사로 인한 가까운 사람들과의 단절
- 외상 경험, 예를 들면 따돌림,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의 경험이 있음
- 신체적 질병
- 실직 또는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 사회경제적 어려움
- 대처능력 또는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 완고하고 경직된 성격

주변에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인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 공감, 수용, 진실성의 기본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요인을 보이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불안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 질문하면, 대부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살하려는 사람이 경험하는 불안도 감소되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위험성수준에 따라 정신과병동 입원, 상담, 가족에게 고지, 주변 사람의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자살하려는 사람의 위험성수준을 일반사람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평가와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자살하려고 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자살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7. 자살 발생 후 대처하는 일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행동을 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자살로 사망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자살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사후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살과 관련되어 사후개입이 필요한 대상은 누군가의 자살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주변 사람인데 가족구성원, 도움을 제공한 사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전문가, 친구와 지역사회 등이 포함된다.

7.1 자살시도자

자살을 시도했지만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시 자살생각을 하고, 자살행동을 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38배 정도 높다. 그러므로 스스로 죽으려 했지만 죽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과거 자살행동의 이유, 자살시도의 방법, 자살행동에 있어서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살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설령 자살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2 가족구성원

가족 중 누군가를 자살로 잃은 자살유가족은 엄청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기 때문에 자살유가족은 자살을 감추려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발설하지 않으려 한다. 가족들은 자신의 고통을 혼자 견디려하고,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로 인한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자살로 인한 슬픔이나 비애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상실보다 지속적이고 훨씬 복잡하다. 자살로 인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신체화, 강박적인 증상들, 우울, 불안 그리고 피해의식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사회적인 지지를 덜 받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외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들은 성인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정신과적 증상과 손상된 기능을 나타낸다. 하지만 자살유가족들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을 찾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자살유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혼란과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멀리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설령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상당적인 도움보다는 의학적인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유가족에게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비탄을 위로하기, 자살유가족이 경험하는 죄책감에 대처하도록 도와주기, 분노에 직면하도록 도와주기, 자살한 사람이 없는 삶을 다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7.3 친인척이 아닌 주변 사람들

이들은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자살로 인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자살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하는 등의 학습에 의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친한 친구나 소중한 사람의 죽음은 슬픔에 빠진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주변 사람을 자살로 잃었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비애에 대한 표현과 내적 경험은 사람마다 독특하고 과거경험, 성격, 가족, 문화, 영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 친인척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누군가 자살로 사망한 것에 의해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인식하고 자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행동에서의 융통성을 발휘하게 해주며, 새로 구성된 시각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도과정을 통해 잘 극복하지만, 잘 극복하지 못하고 우울, 불안, 약물남용과 자살의 위협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당장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한다.

자살유가족과 주변 사람들(suicide survivor)을 위한 평가와 도움되는 행동

- 유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안전감과 평안함을 느끼는지 확인하기
- 유가족과 주변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을 인정하고 객관화하기
- 유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하거나 화내지 말라고 하지 않기
- 유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 지에 대해 말하지 않기
- 유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자신들이 상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 주기
- 유가족과 주변 사람의 상실에 대한 과거경험과 반응에 대해 이해하기
- 애도과정에 대한 가족, 문화, 영성과 경험에 대한 것 이해하기

- 유가족과 주변 사람의 상실에 대한 주변환경 이해하기
- 유가족과 주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지망에 대해 이해하기
- 유가족과 주변 사람에 대한 상실의 의미와 중요성 이해하기
- 정상적인 애도에 속하지 않는 증상 찾기
- 자살의 위험성 평가하기
- 임상적인 우울과 불안의 증상 찾기
- 약물이나 불법약물 남용의 증상 찾기

자살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자살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했다면 다음과 같은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자살유가족과 주변 사람(suicide survivor)을 위한 관리

- 자살유가족과 주변사람에게 지지와 재확신 제공하기
- 자살은 유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실수가 아님을 강조하기
- 애도과정에 대해 교육하기
- 실질적인 문제와 걱정거리에 대해 문제해결 제공하기
-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표현하도록 격려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기
- 긍정적인 경험을 기억하도록 격려하기
- 사회적인 지지와 연결되도록 격려하기
- 사망한 사람을 아는 사람과 공유하기
- 일상적인 생활과 활동 격려하기
- 자기관리 격려하기
- 실제적인 목표 설정하기
- 심각한 수면문제나 심한 불안장애가 있을 때는 약한 안정제를 사용하기
- 적당하다면 가능한 지지서비스에 의뢰하기
- 정상적인 애도증상이 아닌 것 찾아보기
- 항상 자살의 위험성 평가하기

- 항상 임상적 우울이나 불안의 증상 찾아보기
- 항상 알코올이나 불법약물의 남용의 증상 찾아보기
- 필요하다면 짧게라도 자주 확인하기
-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특정의 시간에 대해 준비시키기

8. 나가는 말

한국사회에서 이제 자살은 목회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한 해 1만 5천 명 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사회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이 사회가 죽음의 문화에 지배 당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의 주를 고백하는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서 생명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살의 문제를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 어려움에 있고, 삶이 버거운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해야 한다.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서 교회는 생명에 대한 바른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생명살림의 마음을 갖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지침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생명살림과 자살예방과 자살방생 후 대처에 대한 제안들을 담았다. 그것은 성서적신학적 이해와 교회의 소명, 유가족을 위한 예배, 설교와 교육, 그리고 교회의 실제적인 실천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서가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바로 서는데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

부록1>

자살자의 장례를 위한 예배문(1) -신자의 자살로 그 사실이 알려진 경우

예식사/집례자

우리는 지금 조금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 000씨(성도, 직분명)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가족들과 교우들 모두는 황망한 마음입니다. 그를 위기상황에서 구해 내지 못한 죄책감과 그를 생전에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조금 일찍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그가 우리를 앞에 두고 먼 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으며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의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가난한자, 병든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그가 병들어 괴로워 할 때, 그가 인생길에서 힘들어 하며 고아처럼 두려워하고, 과부처럼 외로워할 때 그에게 다가가지 못한 죄인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오늘 고 000의 장례예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다함께 침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 다같이

(침묵가운데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사죄의 확인/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 8)”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된 위로를 주시길 빕니다.

회 중: 아멘

찬송/ 485장 “세월이 흘러 가는데”

1.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2. 저 뱃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배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3.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 거문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 하리

4. 큰 풍파일어 나는 것 세상 줄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 가 리
(후렴) 저 요단강 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기도/ 말은이

(이 기도의 순서는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하였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기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식에 참여한 목회자 혹은 장로로 기도를 드리게 하며,
기도문은 먼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성경봉독/ 요 8: 1-11/ 집례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앞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
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
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
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
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
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
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
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요
8: 1-11)

설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설교자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난감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편한 마음
보다 더 큰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입니다만, 기독교 신앙이 스스로 자신
의 목숨을 끊는 것을 죄악으로 간주하여 왔기에, 우리는 그를 잃은 슬픔과 더불어 그의 구원
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여왔던 000성도(직분) 이기에 우리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자살을 금기시 해왔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해왔

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 000성도(직분)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함으로써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며 우리 모두는 이점을 매우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한한 인간은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의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판단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발각되어 사람들에게 잡혀왔습니다. 율법대로라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을 위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리를 떴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어기고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한이 없으신 긍휼하심으로 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 000성도(직분)의 죽음 앞에서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외면하였고 돕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그가 과연 구원받았을까?”를 염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아쉬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소에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삶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봉사, 가족과 함께 했던 선한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삶을 마친 고 000성도(직분)를 향하여서도 “수고 하고 무거운 짐 진 자여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길 말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는 감히 고 000성도(직분)를 우리 주님의 품에 올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설교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000성도(직분)를 공활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활히 여기심으로 그를 품에 안아 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 땅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중대한 죄악이었으나, 그를 넓으신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에 남아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마음을 받으시사,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공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애통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1장 외롭게 사는이 그 누군가/ 다같이

1. 외롭게 사는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2.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이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네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3.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네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후렴)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네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고인약력소개/ 말은이

(세상에서의 삶과 더불어 신앙생활과 교회에서의 섬김에 대해 낭독 혹은 영상을 소개한다)

조사/ 말은이

(먼저 말은이가 고인에 대한 기억들을 정리하여 전달한다.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한사람씩 고인에 대한 의미 있는 기억들을 회상하며 나눌 수 있다.)

찬송/ 608장 후일에 생명그칠 때/ 다같이

1.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2.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녕히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있네
3.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4.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켜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 가겠네
(후렴) 내주 예수 뵈올 때에 그 은혜 찬송 하겠네 내 주 예수 뵈올 때에 그 은혜 찬송 하겠네

축도/ 설교자

인사/ 말은이

(호상 또는 유족대표가 나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남은 절차에 대해 광고한다)

부록2>

자살자의 장례를 위한 예배문(2)

-신자의 자살로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예식사/ 집례자

지금부터 고 000성도(직분)의 장례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뱀전 1: 3-5/ 집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고 000성도(직분)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장례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시고 이 예식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07장 내 본향 가는길/ 다같이

1. 내 본향 가는 길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위의 수고를 그 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길
2. 주 예수 예비한 저 새집은 영원히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3.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 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기도/ 말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갑작스런 고 000성도(직분)의 죽음 앞에서 황망해 하는 유족들과 이곳에 모인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유족들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헤어짐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알지 못하였기에,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너무나 큼니다. 좀 더 그(녀)를 위해 함께 하지 못하였던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에 그(녀)와 함께 하지 못하였던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만남을 나누고 갖지 못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쉬움 가운데 그(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이렇게 가까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급작스런 죽음 앞에서 황망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 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어 크신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장례의 모든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03: 8-18/ 집례자

“여호와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위로와 권면/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설교자

오늘 우리는 뜻하지 않았던 죽음 앞에서 황망한 마음으로 고 000성도(직분)의 장례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지를 우리는 늘 잊고 살지만,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원초적인 이유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사 6: 5)”

우리 중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그 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고 000성도(직분)의 죽음 앞에서 그의 아름다웠던 삶과 열매들을 기억합니다. 그의 삶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소망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슬픔과 고통과 좌절, 그리고 때로 있었던 불신앙과 회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혹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 000성도(직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그의 작은 믿음을 보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이 시편 103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모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며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을 믿습니다.

찬송/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 다같이

고인약력/말은이

조사/말은이

찬송/ 491장 저높은 곳을 향하여/다같이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 괴롭과 죄만 있는곳 나 비록 거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4.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후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살○이 언제나 넘치웁니다.

축도/ 말은이

인사와 광고/ 말은이

자살자의 장례를 위한 예배문(3)

-불신자 자살의 경우

예식사/집례자

지금부터 고 000씨의 장례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조객 여러분께서는 기독교 예식으로 거행되는 예식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유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중한 조의를 갖추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원/ 마 11:28; 요 14 27/ 집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 너는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고 000씨를 환송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이든 이를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녁노을을 맞아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처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고 000씨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 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1.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2.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 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 하네
3.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 떨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4.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말은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죽음이 올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나 허망하게 자신의 삶을 마친 고 000씨의 죽음 앞에서 황망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주님의 이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면, 주님! 그것은 우리의 죄이오니 우리에게 그 죄과를 돌리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죄 많은 죄수가 주님 곁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을 때, 그를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일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고 000씨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마음으로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면, 그를 어둠의 그늘에서 건져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갑자기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퍼하며 고통 중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간 고인을 돌아보지 못하였던 것을 후회하며 한탄하는 유족들에게 그 죄책감을 지워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조차도, 인간의 실패조차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일이 오늘 우리 모두와 유족들에게는 큰 슬픔이오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 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슬픔 속에서 살아갈 힘마저 잃어버린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눅 15: 11-24 / 집례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

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권면과 위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설교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음은 절망의 순간이지만,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다하는 순간이지만, 그 찰라의 순간에도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 함께 죽음을 맞이하던 한 강도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렇듯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고 000씨가 죽음을 맞이하던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옆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났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비하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시간을 모두 낭비해 버렸지만,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이 절망스런 날에 우리는 이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하늘 나라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잔치를 배설하시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교리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과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이런 말로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 000씨와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서/ 말은이

고인의 약력 소개와 회고/ 말은이

찬송/ 273장 나주를 멀리 떠났다/ 다같이

1.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2.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3.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4. 나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5. 나 바랄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후렴)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축도/ 집례자(목사)

광고와 인사/ 말은이

기원/ 집례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 13)”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은 슬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416장 너희 근심 걱정을/ 다같이

- 1.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 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 2.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 3.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기도/ 집례자

위로의 하나님! 고 000씨(성도, 직분)의 장례를 마치고 유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이 시간 찾아 오셔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유족들은 고 000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으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할지라도 절망은 하지 않게 하시고, 반성은 할지라도 자학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책감을 도리어 선하게 바꾸어 주시어 남은 가족들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돌아 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인이 남기고 간 유산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배우고 계승하게 하시고, 부족하였던 부분은 보완하여 후세들이 더 좋은 삶의 모습으로 변환시키는 삶의 진보가 있게 하

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염려와 두려움에 싸여 있는 유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시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46 : 1-3; 7-11/ 집례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불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데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위로와 권면/ 집례자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고, 우리 모두는 정신없이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제 장례를 마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함께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직도 우리들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쉬움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려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슨 힘으로 내일을 맞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치 오늘의 시편 46편이 말하듯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당황스러움, 산이 흔들려 바다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황당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두려워 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시편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큰 환란을 당하지만, 시편기자는 그 환란속에서 도리어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오늘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 내시길 바랍니다.

위로와 나눔/ 유족중에서

(고인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서로 나누고, 장례중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함께 나누다)

축도/ 집례자(목사)

(아론이 축도로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욥 19: 25-27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사 40 : 1-2; 6-11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했으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 67: 17-25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

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시 46: 1-5; 10-11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 90: 1-10; 12 (지혜를 얻게 하소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 130 : 1-8; 17-18 (여호와를 바랄 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 139: 1-12; 17-18; 23-24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흑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요 5: 21-29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6: 37-40 (아버지의 뜻은 믿는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11: 17-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4: 1-6; 25-27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롬 14: 7-9; 10-12 (비판하지 말라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전 15: 16-20; 51-58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

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썩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썩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후 4:16-5:1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살전 4: 13-18 (죽은자들이 일어나리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계 21: 1-4; 22:3-5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

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애 3: 1-9; 19-25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데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1. 자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자살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개인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것을 신앙 하나로 단정하여 말하는 것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믿음이 없어서 자살했다거나 교회가 잘 못해서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살에 대해 잘 못된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자살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심한 우울증을 만들 수도 있다.

2.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자살로 사망하는 자들이 크게 늘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유가족들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교 중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자살한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가족이 어떻게 했길래 죽기까지 했느냐’는 언급은 남은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언어사용이다. 안 그래도 가족의 죽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우울증 환자와 자살 예비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교회 내에서 자살자를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하고 그 유가족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3. 자살의 방법이나 장소, 자살의 경위는 상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특히 자살의 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하며, 같은 의미에서 자살의 장소나 경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4. 유명인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지 않는다.

유명인의 자살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자살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미화하거나 영웅적 결단으로 설명해서도 안 된다. 그들의 죽음도 동일하게 오늘 하루 자살로 죽을 수 있는 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5. 자살을 고통해결의 방법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자살자에 대한 동정심으로 자살을 어떤 한 문제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언급은 자살에 대한 현실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살은 남겨진 문제들의 시작일 뿐이다.

6. 흥미중심이나 흥미로운 예화로 사용하지 않는다.

혹 설교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자, 또는 세태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자살의 문제를 자극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들을 경계해야한다.

1)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1.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강조점들을 언급하고 그것을 자살의 문제와 연결지어 설명한다. 특히 생명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한다. 나의 생명이라도 그 행위는 이미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임을 명확히 한다. 더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 자살은 신에 대한 반역이다. 또한 생명을 쉽게 대하는 언어적 태도도 피한다.

2. 자살의 사회적 심각성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자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다.

3.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상담소나 상담전화 등을 소개하고 주보에 기재하여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4. 자살의 현실을 설명한다.

자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유족들의 아픔이 있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음을 알린다. 특히 자살은 이기적인 선택임을 표현한다.

5. 자살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을 소개한다.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을 소개하여 주변에 자살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돕도록 한다.

6.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교육한다.

7. 우울증을 영적문제가 아닌 정신건강의 문제로 소개하고 치료를 권한다.

우울증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를 소개한다. 특히 우울증을 영적문제로 보지 않도록 하고 치료해야할 질병임을 확실히 한다.

2)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2012년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률에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각 지역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자살예방교육 실시 등을 해야 하며, 특히 범국민적인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를 정점으로 각 시도에 광역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시군구에는 지역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현재 200여 곳이 넘게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가까운 곳에서 자살예방활동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자살예방교육이나 정신보건교육 등이 진행되며, 심리테스트 또는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여러 곳에서는 지역의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기관에서는 보통 자원봉사자들에 기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한다거나 방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곳에서 교육도 받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을 발견하여 센터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기관 외에도 민간부분으로 ‘생명의전화’가 있다. 생명의전화(<http://www.lifeline.or.kr>)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전국에 17개의 센터가 있으며 전국 공동의 상담전화 1588-9191으로 연결된다. 이 전화를 통하여서 자살 및 인생 전반의 고민들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전화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의전화는 상담사나 자살위험기상담사 교육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민인식증진을 위해서 매년 생명사랑밤길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한국자살예방협회도 있다. 이곳에서는 사이버상담실인 ‘생명의친구들’(<http://www.counselling.or.kr>)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담가들이 이곳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살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문가들이 도움이 언제나 필요하다. 신앙의 도움과 함께 전문가들과 연결될 수 있는 위와 같은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

경과보고

- 2013.09.11. 제98회 총회에서 강원동노회(노회장 박홍길 목사)가 자살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목회적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현의를 함
- 2013.10.07.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에서 사회문제위원회로 조사연구 요청함
- 2014.03.13. 제98-1차 사회문제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자살에 대한 목회지침서 제작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함
집필위원장 :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
집 필 위원 : 김충렬 교수(한일장신대학교), 김경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박형국 교수(한림대 인문한국연구단), 육성필 교수(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박천웅 목사(사회문제위원장), 이승열 목사(사회봉사부 총무),
조용희 목사(생명신학협의회 사무국장)
- 실 무 : 이명숙 목사(사회봉사부 과장)
- 2014.03.24. 자살에 대한 목회지침서 목차 논의 및 집필분담을 함
- 2014.04.18. 집필목차 재구성 및 내용 재 검토를 함
- 2014.05.16. 집필초안원고 작업 회의를 함
- 2014.06.05. 자살에 대한 목회지침서 초안 강독 및 수정 작업을 함
- 2014.06.23. 자살에 대한 목회지침서 강독 및 2차 수정 작업을 함
- 2014.06.27. 자살에 대한 목회지침서 회람 및 수정 보완을 함
- 2014.06.30. 제98-2차 사회문제위원회에서 검토를 함
- 2014.07.28. 제98-5차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검토를 함
- 2014.09.25 제99회 총회에 “자살에 대한 목회지침서” 총회정책문서로 채택